

전남,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 역량 보였다

제104회 전국체전 대회 5일차

“개막식, 역사상 최고” 극찬
치밀하고 섬세한 대회 운영
선수단·관람객 높은 만족도
도민 시민·질서의식도 합격점



“제104회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라도가 ‘글로벌 관광·체육·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의 과거·현재·미래를 집대성한 개막식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치밀하고 섬세한 대회 운영 준비로 선수단은 물론 해외 동포,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맛과 멋이 담긴 다양한 문화행사로 전남의 매력을 국내외 곳곳에 알렸고,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질서의식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2면>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전국체전 개회식은 ‘웅비하라 전남의 땅 울림’을 주제로 3시간 여 동안 진행되면서 도민과 선수단, 초청내빈 등 1만 5000여명으로부터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공식행사로 진행된 주제공연은 3막에 걸쳐 최첨단 미디어와 접목한 마당놀이, 뮤지컬 형식으로 펼쳐졌고 대형 수조(넓이 500㎡) 무대, 워터스 크린(높이 15m) 퍼포먼스 연출 등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성화 점화와 함께 펼쳐진 드론쇼는 500여대의 드론을 통해 나로호가 발사되고 우주로 비상하는 모습, 해상풍력 블레이드와 태양광 발전소 등을 보여 주며 미래 전남의 경쟁력인 신재생에너지·우주 산업을 형상화해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아이돌그룹(다크비)이 만든 체전 주제가 ‘더 웨이브’는 전남의 역동성과 매력을 담아내면서 인기를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역대 최고의 무대’라며 함께 자리한 김영록 전남지사를 수차례 격려했다.

오는 19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70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수준급 대회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감동 체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체전을 위해 신축한 목포종합경기장·목포반다비체육센터·나주스피리전용경기장·나주장애인종합복지관 론볼경기장·광양성황스포츠허브 수영장, 개보수를 마친 22개 시·군 48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물 자체점검,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장 안전매뉴얼도 제작, 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대책도 현장 대응 위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차량 2부제, 관람객 수송 대책, 관람객 편의를 위한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관람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회 기간 매일 현장을 돌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청 실·국



16일 오후 나주시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 여자일반부 메디슨 30km 결승에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나주시기자mjna@kwangju.co.kr

직원들을 매일 선수단, 해외동포 등에 밀착 배치해 대회 운영과 관련 의견을 수렴, 이를 실시간 반영하고 있는 점도 칭찬을 받고 있다.

전국체전을 전남의 문화·예술·역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전남만의 매력이 담긴 문화 행사도 관람객, 선수단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만7000여명에 이르는 전남도민응원단은 경기장 곳곳에서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성공적 대회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특색 있는 응원 문구와 도구를 활용한 응원을 펼치고 경기장 질서 유지, 관람 후 환경 정리 등을 도맡아 하며 전남의 인심을 선수단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술시 소속 참가선수단은 “경기장에서 따뜻하고 열린 응원을 해준 도민응원단의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외 4200여 명의 자원 봉사자와 의료 단체도 주말과 휴일을 잊은 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개·폐회식과 경기운영을 지원하고 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노약자와 장애인 보조활동, 의료지원, 해외동포선수단 환영 안내 등의 역할을 하며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돕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5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전남의 매력과 우수한 문화·역사 자원을 알리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폐막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경제계, 대우위니아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호소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잇단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광주지역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질 수 있어 기업회생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2023년 10월 16일 1면>과 관련, 지역경제계가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대우플러스 등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상회는 “지역 주요 앵커기업들의 연쇄적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은 물론 수백의 협력사들이 줄도산할 위험에 처했다”며 “지역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정관리 신청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 축인 가전산업이 때를 놓치지 않고 심기일전해 다시금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탄원하고 또한 고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상관협연의회 회장단도 이날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돼 지역 협력업체들은 1000여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그 피해가 수만여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과 그 가족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파장 역시 견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하루라도 빨리 회생개시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광주시도 이날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

신양파크 부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추진 ▶2면

임의진 광주 순례기 - 양림동 선교사 골목 ▶11면

굿모닝 예향 - 가을 국악 향연 속으로 ▶18·19면

열사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 측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탄원서에서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가전 매출액의 22%를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어 광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풍전등화에 놓인 광주경제를 살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한편 위니아그룹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지역 대우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은 “퇴직자를 포함한 위니아전자 체불임금은 553억원에 달한다”면서 박영우 회장의 증인 소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